

# 토정비결

1972년 11월 25일 | 양력 | 남성

토정수

718

## 연운 (한 해의 운세)

올해는 묵은 구름이 걷히고 밝은 해가 떠오르는 형국이니,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해입니다. 지혜와 경륜이 빛을 발하여 주변의 신망을 얻게 되며,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운세가 상승하니 인내심을 가지고 매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는 화목함이 깃들고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한 해가 되겠으니, 겸손한 자세로 덕을 쌓으면 더욱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관리에 힘쓰고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면 만사형통하는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 ##

## 1월

새해 첫 달은 계획을 세우고 기초를 다지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주변에서 귀한 소식이 들려오고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건강에 유의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2월

재물운이 서서히 트이기 시작하니 투자나 새로운 사업구상에 좋은 달입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과의 재회가 좋은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으니 인맥관리에 힘쓰십시오. 가족과의 대화를 많이 나누면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

## 3월

봄기운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듯 귀하의 운세도 활기를 띠는 달입니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거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건강운도 좋으니 운동이나 여행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면 좋겠습니다. ##

## 4월

귀인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시기입니다. 학업이나 자기계발에 투자하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 공부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배우자나 가족과의 나들이가 행운을 가져다주니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

## 5월

재물운이 왕성하여 수입이 늘어나거나 뜻밖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달입니다. 단,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면 복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웃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배려하면 덕이 쌓여 좋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

## 6월

대인관계가 원활하여 협력과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을 시작하기에 좋은 때이니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십시오. 건강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한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

## 7월

지혜와 판단력이 빛을 발하는 달이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되 최종 결정은 자신의 소신대로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큰 힘을 얻게 됩니다.##

## 8월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풍요로운 달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과가 인정받거나 사업이 번창할 조짐이 보이니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면 복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 9월

안정되고 평온한 시기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기 좋은 달입니다. 학문이나 기술 연마에 힘쓰면 미래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 10월

가을의 결실처럼 귀하의 노력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달입니다. 재물운과 명예운이 모두 상승하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처신하십시오.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살피고 효도하면 하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 11월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찾아오는 달이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도 좋은 시기이나, 신중함을 잊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따뜻하게 몸을 보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와 보람이 가득한 달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덕을 나누면 내년에도 좋은 운이 이어질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 더욱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의 말씀\*\*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나니, 성실과 인내로 한 해를 보내시면 만복이 깃들 것입니다."

---

토정비결은 조선시대 토정 이지함 선생이 만든 운세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